

##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독교인의 trade mark 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쁨을 잃어 버리고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영적 문제가 기쁨을 잃어버린 습관적 신자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습관이 되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의 가슴에선 기독교인의 trade mark 인 기쁨이 사라져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에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현재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네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 하든지 환경을 능가하는 기쁨을 가지고 **지금**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49 : 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 : 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子民)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 할지어다

시편 149 : 3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 :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 :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어다

시편 149 : 6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시편 149 : 7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시편 149 : 8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시편 149 : 9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 <성도의 기쁨의 정의>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 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기쁜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침으로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영혼을 다스릴 때 이런 신적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 :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 <두려움과 기쁨>

성령 충만하면 위로 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지만 이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행복과 기쁨을 일 순간에 근심과 걱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두려워 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 나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환경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창세기 15 : 1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나 두려움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성령이 자기 온 영혼을 지배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고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언제 어떤 환경에 있던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홍수가 몰려와도 홍수를 바라보지 않고 홍수위에 좌정하신 여호와를 뵙니다.

그래서 홍수 위에서도 지금 담대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때문에 불경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찰흙같이 어둡고 앞길이 캄캄하여도 환경을 이긴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길

하박국 3 :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3 : 18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기쁨은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입니다.

환경에 굴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과 자신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선 어떤 환경 어떤 처지든지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밀어 주어 끝내는 창대케 되는 약속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초월이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순 있지만,

초월의 길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초인을 외치던 니이체가 광인이 되어 로상에서 외로운 인생을 마쳤지만, 우리 기독교는 초월의 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7 :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돌아가실 양반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있습니까?

그러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 :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슬픔에 잡혀 있어야 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 근심 중에 있는 자가 기쁨을 얻을 것이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초자연적 기쁨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팔자에 타고난 사람이라도 환경을 능가하는 초자연적 기쁨이 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에게 제시된 초월의 길입니다. 자기 극복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으로 현재의 환경을 다스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4 :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항상 기뻐 하라!

네가 있는 현재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할 때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쁨의 능력>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예>1.

그러면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공산당이 점령할 때, 다른 선교사들은 다 탈출하였지만, 이 선교사는 공산당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선교사를 감방에 집어 넣고 매일 같이 괴롭혔습니다. 심심하면 불러내어 찢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어찌나 심하게 찢는지, 매로 인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차라라 낫다고 할지경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 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면서, 차라리 죽여 달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감옥에서 돌아오면 혼자만 벌리는 축제가 있는데, 기쁨의 축제입니다. 혼자 찬송을 부르며 감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선교사는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5 : 10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 :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 :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자기 마음을 때리고, 영혼을 휘어 잡는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못나고 비천 한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큰 상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

실컷 얻어 맞아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늑골이 되어도, 그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 하신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요한복음 16 : 22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몇 년 후에 이 선교사는 기독교 단체들의 노력으로 해방되고 이 선교사의 수기는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선교사가 그때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실망하였다면, 한달을 못견디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자연적 기쁨으로 역경을 이기니, 결국은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 기쁨입니다. 기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도 아니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trade mark 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부터 웃으십시오.

얼굴을 펴시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선물하십시오.

민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기쁘게 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 : 4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 하십시오.

하나님은 조만간 여러분의 슬픔을 웃음으로, 아픔을 건강으로, 환난을 기쁨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예>2. : 사도 바울의 예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실로 인하여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 : 23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 :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고린도후서 11 :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 :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1 :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환란의 바다 한 가운데에 있던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누구에게든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것이 아닌 신적인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이 아닌 초월적입니다.

이런 기쁨에는 능력이 따라 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원들이 바울 사도의 옷을 벗기고, 많이 친 후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 : 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 : 26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 : 28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행전 16 :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사도행전 16 : 30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사도행전 16 : 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집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 : 34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환난이 변하여 전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기쁨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환난과 고난에 찌그러 들어 못살고 멸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광과 기쁨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산들은 기뻐 외치라.**

오늘부터 우리는 기뻐하며 사십시다.

기독교인의 trade mark 인 기쁨을 보이는 사람이 되십시다.

환난을 능가하는 기쁨을 보이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들어 내십시다.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여러 분의 심령과, 가정과, 여러 분들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